

CAGLIERO 11

Bollettino di Animazione Missionaria Salesiana



당신은 갈리스도 가라바리오 성인처럼(이동) 할 수 있습니까?

사 랑하는 살레시오 선교사 그리고 살레시오 선교를 도와주는 친구 여러분! 인간에게 이동은 이시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사회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거처를 옮깁니다. 2011년 1월 초 나는 토리노 옆에 있는, 우리의 거룩한 순교자인 갈리스도 가라바리오 신부님의 고향인 쿠르네를 방문하였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을 (www.sdb.org; ed. LAS Roma, 2000) 손에 들고 갔습니다. 아주 다른 이동의 삶을 살다가, 겨우 27의 짧은 나이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갈리스도는 젊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수만 킬로를 옮겨 다녔습니다 <피에몬테-상하이-홍콩-광둥-동티모르의 딜리-슈초우(살레시오회에 맡겨진 대리구)>.



그는 선교를 위하여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영어, 광둥어, 상하이어, 포르투갈어)! 그분의 편지에는 이런 어려움에 대한 불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순교 성인인 루이지 베르실리아 주교와 갈리스도 가라바리오 신부에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이런 '이동정신'이 살레시오 안에서 유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 9월25일에 있을 예정이지만, 아직 9명의 후보만이 확정된 142차 선교사 파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우리를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Václav Clement

선교 평의원. 바츨라브 클레멘트, SDB.

<<나에게 영혼을 다오>>가 부르는 유혈의 수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폭력에 의해 상처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러합니다>>(2010년 12월 26일). 사실 1명의 주교, 15명의 사제, 1명의 수도자 (루이스 엔리케 피네다, SDB *홍부회 신부의 학교 동창이었음), 1명의 수녀, 2명의 신학생, 3명의 평신도 사목자가 2010년에 살해 당했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침묵과 겸손으로 살다가 자신의 생명을 전부 바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증언했고,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을 물리치고 사람과 하느님을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교현장 11). 3월 24일, 오스카로메로 주교의 기일을 맞아 **2010년에 살해된 선교사들과 사목자들을 위한 기도와 단식의 날**이 거행됩니다. 우리 살레시오 공동체와 젊은이들에게 이 날을 알리고 기억하게 합니다.

1983년 살레시오회원 중, 초기 순교자들의 시복을 기념하여 에지디오 비가노 신부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님의 수난에 피를 흘리지 않고 참여 한다는 것은 각 영성에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것을 말한다. 돈 보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결과까지 수용하는 모토인 '나에게 영혼을 달라'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선익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순교. 비가노 신부님께서 강조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의 선익을 위한 사랑의 사목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특별히 그리스도교적 사목 활동과 세 명의 중국 청년들의 인간적인 존엄성과 덕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를 맞고 학살당한 두 분 순교자의 피를 흘린 수난이 바로 이것이다. 베르실리아 주교님과 가라바리오 신부님은 우리의 이러한 특별한 정신으로부터 유혈의 수난이라는 최고의 능력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는 베르실리아 주교님이 자신의 살레시오와 선교사의 성소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 보스코의 예언적 꿈에 의하면, 산테 하렐리 신부님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하느님이 허락한 성찬을 가져오라, 나는 피로써 그것을 채우리라!">> (ASC 308, 회람, 돈 보스코의 사목적 정신과 순교 그리고 수난)



주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

몇 달 간의 집중적이 양성 이후에 나는 브라질, 살레시오 마누우스 관구의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로마에서 있었던 새 선교사들을 위한 과정이 나에게 나의 내적 생활을 위한 힘을 주었고, 선교생활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대처할 줄 알게 해 주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불같은 선교사의 열정으로 관구의 형제들과 사목에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언어 때문에 그들의 귀에 한마디 말도 못했지만, 회원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차츰차츰 나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포르투갈 말은 내가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커다란 도전이었다. 처음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나는 포르투갈 말은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내 주위 사람들은 모두 포르투갈 말만 하고 있었고

이태리어를 알거나 적어도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린 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이 나의 수도자 성소와 선교사 성소에 많은 의심을 갖게 했다. 그러나 굳은 신앙으로, 수도생활과 선교사 생활의 근본 동기에 대하여 나 자신에게 계속 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초창기의 통합시기에 공동체 원장으로부터 영적인 동반을 잘 받았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인도에 있는 살레시오 선교사의 영적 동반도 받았다. 나의 수도자서소와 선교사 성소는 단순하게 “나를 가득 채우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이는 하나의 감사의 표현이고, 모두를 봉헌하고 싶은 욕구이며, 성 바오로의 표현처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1고린 9,16)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만이 때때로 숨겨져 있는 동기를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고향과 너의 아버지의 집과 조국을 떠나 내가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창세 12, 1). 이것이 나의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의 형제 회원들과 함께 돈 보스코의 일을 계속하고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브라질 북동쪽의 젊은이들의 더 밝은 미래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교육과 양성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콜베. 콩고출신 브라질 선교사.

아프리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온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는 자신의 대륙에서만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 바오로6세 교황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 “아프리카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 이는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을 위한 선교사입니다” [...] 특별히 아프리카 교회에게 자신의 교구를 넘어 선교하라는 촉구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아프리카 교회, 128, 129)



중동을 위해 선교사를 찾습니다.

관구 - 나라	필요한 언어	특정적인 환경과 선교사의 자질
터키, 이란 - 로모코	터어키어, 페르시아어	회교 환경, 다종교, 젊은 회원의 필요, 삶을 통한 증거, 강한 성소
마로코 - 프랑스	불어, 아랍어	회교환경, 교육사업, 봉사와 증거를 통한선교, 직접 선교 금지 (R22)
튀니지 - 아일랜드	불어, 아랍어	회교환경, 교육사업, 봉사와 증거를 통한선교, 직접 선교 금지 (R22)



살레시오 선교 지향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의 젊은 신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살레시오 ZMB 지부 (잠비아, 나미비아, 말라위, 짐바브웨)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이 혼인성사를 준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시노드에서 다시 강조했습니다: “가정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삶을 위한 성전이고, 교회와 사회의 핵심입니다. 가정은 용서와 평화, 화해와 일치의 문화를 배우고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Proposito 51).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성소사목을 통하여, 살레시오 성소의 문제를 넘어서, 가정과 혼인의 개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젊은이들과 함께 혼인 성사의 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AIDS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마을 가운데 ZMB지부(짐바브웨, 잠비아)가 속해 있습니다.

